

야구

6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메이저리그 신인왕 투표 결과 발표



메이저리그 신인왕은 예상대로였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뉴욕 메츠 1루수 피트 알론소(왼쪽)가 신인 최다 53표의 압도적 성적으로, 아메리칸리그에서는 87경기에서 27홈런을 기록한 휴스턴 요르단 알바레스가 생애 한 번뿐인 영광을 거머쥐었다. AP뉴시스

87경기 뒀 알바레스 '만장일치 신인왕'

(아메리칸리그)

외인투수에 사활 건 삼성

지난 4시즌 외인투수 승패마진 -30
라이블리와는 재계약 공감대 형성

삼성 라이온즈는 2016시즌부터 올해까지 4시즌 동안 외국인투수 농사에 실패했다. 이 기간 외국인투수가 기록한 승패마진이 '-30(39승69패)'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허삼영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0시즌의 성패를 가늠할 요소 중 하나가 외국인투수인 이유도 그래서다.

2019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대상자는 없다. 표면적 전력 손실도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수준급 외국인투수가 합류하면 전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최근 2시즌(2018~2019시즌) 동안 국내 선수들이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수들의 부진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그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허 감독도 후보군을 직접 확인하고자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물고 있다.

2019시즌 후반기 합류해 9경기 1완봉승 포함 4승4패,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한 벤라이블리와는 재계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고구속 150km(평균구속 145~147km)에 이르는 빠른 공을 지닌 데다 슬라이더, 커브의 움직임도 좋다. 국내 선수들 사이에서도 "정말 좋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흥준학 단장은 "투수 2명과 타자 1명으로 외국인을 구성한다는 큰 틀은 마련했다"며 "여의치 않다면 타자 2명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투수 2명으로 구성하려 한다. 1년간 모든 자료를 토대로 후보군은 어느 정도 추린 상태다. 12월 초까지는 선수들의 신분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이기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7홈런·78타점...OPS 1.067로 3위 빅리그 승격 늦었지만 강렬한 인상 NL선 53표로 알론소가 신인왕 차지

뉴욕 메츠 1루수 피트 알론소(25)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외야수 요르단 알바레스(22)가 올해 메이저리그 최고 신인으로 공인받았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는 12일(한국시간) 2019시즌 내셔널리그(NL)와 아메리칸리그(AL) 신인왕(ROY·Rookie Of the Year)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AL에선 알바레스가 1위 표 30장(총점 150점)을 독식해 만장일치로, NL에선 알론소가 1위 표 29장과 2위 표 1장(총점 148점)의 압도적 지지로 생애 단 한 번뿐인 영광을 안았다.

알바레스의 만장일치 신인왕 수상은 AL에선 역대 11번째, 메이저리그 전체

최근 10년 메이저리그 신인왕		
아메리칸리그	연도	내셔널리그
요르단 알바레스 (휴스턴)	2019	피트 알론소 (뉴욕 메츠)
오타니 쇼헤이 (LA 에인절스)	2018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애들랜트)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	2017	코디 벨린저 (LA 다저스)
마이클 폴머 (디트로이트)	2016	코리 시거 (LA 다저스)
카를로스 코레아 (휴스턴)	2015	크리스 브라이언트 (시카고 컵스)
호세 아브레우 (시카고 화이트삭스)	2014	제이콥 디그롬 (뉴욕 메츠)
윌 마이어스 (탬파베이)	2013	호세 페르난데스 (마이애미)
마이클 트라웃 (LA 에인절스)	2012	브라이스 하퍼 (워싱턴)
제레미 헬릭스 (탬파베이)	2011	크레이그 킵블 (애들랜트)
네프탈리 펠리스 (텍사스)	2010	버스터 포지 (샌프란시스코)

로는 역대 24번째다. 2위는 2위 표 16장, 3위 표 5장으로 총점 53점을 얻은 볼티모어 오리올스 좌완투수 존 민스(26)가 차지했다. 2위 표 6장, 3위 표 9장(총점 27점)을 받은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브랜든 로(25)가 3위에 올랐다.

메츠 소속 선수의 수상과 1루수의 NL 신인왕 등극은 나란히 통산 6번째다. 알

론소의 만장일치 수상을 막은 선수는 애들랜트 브레이브스 우완투수 마이크 소로카(22)로, 1위 표 1장을 비롯해 2위 표 25장과 3위 표 2장(총점 82점)으로 2위에 올랐다. 2위 표 2장, 3위 표 20장(총점 26점)을 받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20)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알바레스는 올해 6월 뒤늦게 빅리그로 승격된 탓에 87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27홈런 78타점의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타율도 0.313으로 준수했고, 출루율과 장타율은 각각 0.412와 0.655에 이르렀다. 30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들 중 알바레스(1.067)보다 높은 OPS(출루율+장타율)를 뽐낸 선수는 밀워키 브루어스 크리스티안 엘리치(1.100)와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웃(1.083)뿐이었다.

161경기에서 타율은 0.260에 불과했지만 53홈런 120타점을 올린 알론소는 올 7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더비 우승을 비롯해 홈런 관련 각종 신기록을 수립했다. 2017년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가 세운 메이저리그 신인 시즌 최다홈런 기록(52개)을 2년 만에 넘어섰고, 메츠 프랜차이즈 시즌 최다홈런 기록(41개)은 가볍게 넘어섰다. NL 홈런왕에도 등극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LA타임스 "RYU, 스스로 몸값 낮춰야 잔류"

현지 언론, 류현진 잔류 회의적 반응
내일 사이영상 투표 결과 발표 주목

프리에이전트(FA) 류현진(32)의 원 소속 구단 LA 다저스 잔류 여부에 현지 언론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지역지 LA 타임스는 12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선발 투수와 우타 거포 영입에 힘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때에는 다저스가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선발 자원 게릿 폴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수 중에서는 앤서니 렌던, 조시 도널드슨이 다저스의 영입 후보가 될 것으로 점쳤다.

다저스가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선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사치세를 감수할 만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최근 메이저리그(MLB) 빅마켓 구단들은 사치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2019시즌에는 시카고 컵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만 사치세를 냈다.

다저스는 2017년부터 사치세를 피했다.



류현진

LA 타임스는 "다저스가 사치세 부과 한 도까지 여유를 두기 위해 트레이드를 시도할 수 있다"며 내부 F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9시즌을 마치고 다저스에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류현진을 포함해 5명인데, LA 타임스는 "이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 선수는 류현진 뿐"이라며 "폴과 스트라스버그 영입 전장에서 패하거나 거액을 쓰고 싶지 않은 구단들이 류현진에게 3, 4년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덧붙여 "LA에서 뛰는 것을 좋아하는 류현진이 스스로 몸값을 깎는다면 다저스에 남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류현진은 이번 겨울 다저스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류현진을 원하는 팀은 많다"고 지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 선발출판해 182.2이닝을 소화하며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의 성적을 거뒀다. MLB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류현진은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와 함께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됐다. 사이영상 수상자는 14일 공개된다. 강산 기자

편지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ports21

스포츠투아이를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11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SK	13	10	3	10	3	
2	전차팬드	13	9	4	9	4	
3	KCC	13	8	5	8	5	
4	DB	12	7	5	7	5	
5	인삼공사	12	6	6	6	6	
6	현대모비스	13	6	7	6	7	
7	삼성	12	5	7	5	7	
8	KT	13	5	8	5	8	
9	오리온	13	4	9	4	9	
10	LG	14	4	10	4	10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① 라건아	KCC	23.4	① 허훈	KT	6.9	① 라건아	KCC
② 라켄	LG	22.3	② 김시태	LG	6.1	② 라켄	LG
③ 워니	SK	21.0	③ 이정현	KCC	6.0	③ 워니	SK
④ 브라운	인삼공사	19.6	④ 이대성	KCC	5.1	④ 할로웨이	전차팬드
⑤ 미테라스	삼성	19.3	⑤ 김성현	SK	4.4	⑤ 윌리엄스	KCC

여자프로농구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우리은행	5	4	1	0.800	0
2	KB스타즈	4	3	1	0.750	0.5
3	삼성생명	5	3	2	0.600	1
4	KEB하나	4	2	2	0.500	1.5
5	신한은행	5	2	3	0.400	2
6	BNK 썬	5	0	5	0.000	4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대한항공	8	6	2	17	679
2	OK저축은행	7	5	2	15	620
3	삼성화재	8	4	4	13	745
4	우리카드	8	5	3	12	718
5	현대캐피탈	7	3	4	8	687
6	한국전력	7	2	5	7	603
7	KB손해보험	7	1	6	6	707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GS칼텍스	5	5	0	15	448
2	흥국생명	6	4	2	13	517
3	현대건설	6	4	2	12	470
4	인삼공사	5	2	3	5	461
5	도로공사	6	1	5	4	458
6	IBK기업은행	6	1	5	2	415

NBA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서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1	보스턴	8	1	1	밀워키	7	3
2	토론토	7	3	2	인디애나	6	4
3	필라델피아	6	3	3	클리블랜드	4	5
4	브루클린	4	5	4	디트로이트	4	7
5	뉴욕	2	8	5	시카고	3	7
서부 콘퍼런스			남서지구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1	덴버	7	2	1	LAL	7	2
2	유타	7	3	2	LAC	7	3
3	미네소타	6	4	3	퍼닉스	6	3
4	포틀랜드	4	6	4	새크라멘토	3	6
5	오클라호마	4	6	5	골든스테이트	2	9

경기결과			
보스턴	116 - 106	델러스	휴스턴 122 - 116
유타	122 - 108	골든스테이트	LAC 98 - 88
미네소타	120 - 114	디트로이트	MEMPHIS 113 - 109
샌안토니오			
NFL			
시애틀 27-24 (연장) 샌프란시스코			
NHL			
애리조나 4-3 (승부타) 워싱턴			
캐롤라이나 8-2 오타와			

경기예고			
남자프로농구 (13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인삼공사	
오후7시, SPOTV2			
프로배구 (13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3일)			
●2019년 제 3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2019년 홍콩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홍콩)	
●2019년 홍콩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홍콩)		●2020 K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무안, 오전9시)	
오늘의 토토 (13일)			
●배구도토 스페셜 52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장소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13(수) 19:00	OK저축은행 vs 삼성화재	인삼상륙체육관
2	11.13(수) 19:00	현대건설 vs 흥국생명	수원실내체육관